

■ 영상택배 시즌2 - 앞서서 가나니...(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추모영상)

[산하의 썸데이 TV] 백기완 선생 추모 영상_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남송 이덕우 변호사)



편히 쉬십시오

1932년에 태어났으니 십대에 해방을 맞이하고 이십대에 전쟁을 겪었으며 스물 여덟에 4월 혁명을 지나온 삶입니다. 유신의 광풍에 온몸으로 맞서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걸어온 발걸음이 지난 2월 15일 멈췄습니다. 이번 주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추모 영상입니다. 우리 현대사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백기완 선생님의 평안을 빌며 나눕니다. 출처는 SBS 김형민 PD가 운영하는 <산하의 썸데이TV>입니다.

■ 역사속의 오늘

민인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기극 - 평화의 댐 착공 (1987.02.28.)



평화의 댐 착공기사(동아일보. 1987. 2. 28)

1986년 아시안 게임이 폐막되고 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30일 민인들은 TV에 등장한 건국대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곧이어 등장한 건설부 장관의 '북괴의 수공(水攻) 계획'에 까무라쳐야했다.

건국대의 '학생 난동'은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북괴의 수공 계획' 발표 하루 뒤인 10월 31일 3,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대학생 1,525명을 연행해 1,288명이 구속시키며 막을 내렸다.



당시 TV에 보도된 금강산 댐 붕괴 시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화면

그러나 '북괴의 수공 계획'은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을 뜻하는 것이었다. '북괴의 수공 계획'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비밀리에 200억톤 저수용량의 금강산댐(임남댐) 건설계획을 세웠고 이 댐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면 서울은 한나절이면 물바다가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TV화면에는 63빌딩과 국회의사당 모형물이 수족관에 세워져 물속에 잠기는 모습이 비춰졌다.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하며 수공에 대응하기 위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곧이어 거국적 성금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코흘리개 어린아이부터 지팡이에 의지한 어르신까지 긴 줄을 섰다. 그러나 말이 성금이니 실은 반강제 할당이었다. 정권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까지 연기하며 기업들을 닦달했고 각급 학교에도 할당액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모은 성금이 모두 733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모은 돈과 정부 예산을 더해 1987년 2월 28일 이른바 평화의 댐 공사에 들어갔다. 15개월만인 1988년 5월 27일 높이 80미터 길이 450미터 규모로 1단계가 완공되었다. 이 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불신과 낭비를 상징하는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1989년 10월 슬그머니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험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에 관한 1차 분석 결과는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이뤄진 결과로 매우 허술하였다. 또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대 200억톤 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했다. 실제 금강산 댐의 규모는 많아도 59.4억톤으로 그 위험은 3배 이상 과장된 것이었고 그 상태에서 물을 방류해도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가 침수될 뿐이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군부정권의 연장을 위해 민인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던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시국 안정 및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저항 심리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한 과잉 대응"으로 결과를 요약했다. 아울러 북한의 댐은 위험이 되지 못한다는 미국의 분석도 묵살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공사 과정에서는 시공사를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진행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고 이 돈은 정권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또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성금을 이용한 건립방식을 고집해 기업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시킨 거대한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 민인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이다. 1987년 2월 28일, 이름은 댐이지만 "발전 기능과 홍수 조절 기능이 없는 참으로 바보같은 댐"이 민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첫 삽을 떴다.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경주국립박물관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경주국립박물관의 송복사비 귀부와 이수

올 들어 가장 춥다는 날이다. 게다가 사흘 내내 15,000보 이상씩 걸었으니, 다리가 묵지근하다. 오전에 하나로 마트를 다녀온 뒤 푹 쉬었다.

점심 식사 후 경주국립박물관을 찾았다. 한걸음씩 내딛던 행보가 타임머신을 탄 것이다. 입구에서 얼른 눈에 들어온 유물은 잔디밭 위에 놓인 송복사비(崇福寺碑)의 귀부(龜趺)와 이수(螭首)였다. 이 비문은 내 학위논문 자료의 1/4에 해당하지 않던가? 그러나 비신은 진즉에 깨져 사라졌으니, 비편 몇 조각만 이 박물관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토우를 엮은 제사용 술단지



신라가 남긴 토우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끈 물건은 오리 모양의 술 주전자였다. 신라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모양새로,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탓이다.

솔직히 말하면, 두리번거리며 찾던 토기 중의 하나는 한창 성행위에 몰입한 남녀가 어깨
쯤에 붙어있는 제사용 술 단지였다. 일찍이 졸저(拙著) 『천년 암자에 오르다』에 사진으로
올렸던 그 술 단지는 어엿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옆에 예닐곱 개의 토우(土
偶)들이 따로 줄을 섰지만, 예의 선정적인 것들은 전연 눈에 띄질 않았다. 미성년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리라.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

전시실을 바꾸자,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자태를 뽐냈다. 함께 발굴된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드리개 등등의 장식품 역시 눈부신 빛을 발했다. 귀면와와 숫막새
전시대 앞 또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천년의 미소'도 미소라지만, 이들이 지닌 기
하학적인 문양 또한 아주 세련되고 우아했으니, 신라인들이 지닌 격조 그 자체였다.



임신서기석



이차돈 순교비

오늘은 볼 수 있을까? 궁금하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마침내 전시실의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붙들었다. 화랑도들의 손길이 분명한, 아주 진귀한 유물 아니던가?

이차돈순교비(異次頓殉敎碑) 앞에서도 한참을 머물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그리고 백제의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와 마찬가지로, 이 비 역시 비면에 네모 칸을 먼저 그어놓은 다음, 칸마다 한 글자씩 새겨 놓은 독특한 형식 때문이었다. 이제 글자들은 상당히 마모 되었으니, 육안으로 판독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별실은 국은(菊隱) 이양선(李養璿) 선생의 기념실이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반긴 유물은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이었다. 언젠가 기념우표로도 발행되었던 국보급 문화재다. 청동제 신발과 말모양 허리띠고리도 역시 눈길을 떼기 어려웠다. 연유에서 선생을 '경주의 간송 선생'이라고 부르면 지나친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신라의 미소



에밀레종

별관에서는 “오색영롱”이라는 기획전이 열리는 중이었다. 고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유리를 신라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계승·발전시켰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말 그대로 오색영롱한 유리제품들이 오색영롱했다.

한참 뒤 밖으로 나왔다. 찰나 같은 시간동안 아주 긴 세월을 훌쩍 건넜으니, 여운이 절로 길었다. 밖에서는 남산에서 모셔온 부처님과 불탑들이 찬바람을 쏘며 시간의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곁에 에밀레종 소리가 길게, 길게 울려 퍼졌다. 경주의 해거름이었다.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다섯 번째 이야기 “경주 남산의 남쪽 기슭”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